

#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실 해결·임대료 안정화 목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  
침체된 상권 활성화 기대감

국내 유일의 숙성 홍어 가공·생산·유통 산업이 집적화된 나주시 영산동 상권이 전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감소, 상가 공실 등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영산포 홍어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산동 일원(영산3길 29-1)이 전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 상업구역이 50%이상면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상인·임대인 동의율 2/3이상, 상생 협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영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상권 침체 및 공실 문제 해결, 상권 경쟁력 확보, 임대료 안정화 등을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해오며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

현재 해당 구역 내 점포는 총 231곳으로 이 중 42곳은 공실 상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 주관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질 기대감을 높인다.

사업에 선정되면 침체한 상권 회복과 제도약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된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홍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벌 상권'을 주제로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함께 '자생적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주변상권 융합 지속가능한 경영'을 전략으로 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산물인 숙성 홍어를 소재로 특화상품 개발, 영산포 K-FOOD(케이푸드) 테마 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엔터테인먼트 양성,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산동 일원(영산3길 29-1)이 전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나주시 제공

로컬 관광 축제 및 이벤트 등 23개 세부 과제도 발굴했다.

윤병태나주시장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한 영산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영산

포 지역 도시재생, 남도음식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숙성홍어 등 차별화된 먹거리와 천혜 경관을 갖춘 영산강, 풍부한 근대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영산포 전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놀이터를 운영한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나주시는 올해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놀이터(너랑 나랑 함께 놀이nori)'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놀이터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마음열기 놀이부터 상호 교감 놀이, 나무 놀이감을 활용한 오감 체험 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첫 놀이터는 5월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리는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야외에서 아동, 어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팝업

놀이터'로 진행한다. '팝업 놀이터'는 한 시적으로 특정 장소를 빌려 놀이터로 만들어 놀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방식의 놀이터를 뜻한다. 시민 누구나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반백(휴식용 의자)을 제공할 방침이며 아동 권리 포토월이 재미와 정보를 더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남평읍, 대호동, 나주 이화학교, 빛가람동 일원에서 총 7회 운영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찾아가는 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참가 아동을 사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공고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 편리해진다

나주시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 방법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방식을 기존 선불식 충전카드 지급에서 본인 명의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방식은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매년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에 본인 소유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 받으면 신규 발급에 따른 불편

도 덜고 이용 알림 문자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보유 농협 신용·체크카드에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 포인트는 올 연말까지 문화, 스포츠,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만큼 포인트가 우선 차감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 나주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들어선다

### 푸드 업사이클링 분야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푸드 업사이클링' 분야에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5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이란 농·축산 및 식품 가공 부산물 등 상품 가치가 낮은 자원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있으며 2032년 세계 시장규모가 110조원으로 예상되는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신(新)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다.



나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 나주시 제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 예정부지는 나주일반산업단지 일원(부지 3417㎡)이며 지상 2층, 연면적 1612㎡ 규모로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위한 장비·설비 공간, 기업 입주 공간, 연구 분석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기존의 식품산업정책과를 푸드테크 정책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첫 푸드테크 관련 공모사업이어서 특히 의미가 크다.

나주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해 초 푸드테크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푸드업사이클링 산업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왔다.

나주시는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푸드업사이클링 관련 국제 협력 과제 등 다양한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푸드테크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따라 2029년까지 고용 창출 280여 명, 사업화 매출 165억원, 부가가치 26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 '따뜻한 보금자리 4호 주택' 문 열어

주거 개선이 시급했던 한 가족이 나주의 자활기업과 지역사회 후원으로 따뜻한 고쾌적인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나주시는 최근 다도면 규동마을에서 아름답고 도담·한전MCS의 후원으로 '취약계층 따뜻한 보금자리 4호 주택' 준공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유한회사 아름답건설(대표 이수길, 어은화)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우수 자활기업이다. 지난 2020년 반남면 제1호 취약계층 보금자리 주택을 시작으로 2021년 금천면 2호, 2023년 동강면 3호, 2024년 다도면 4호까지 취약계층 주



거 안정을 위한 후원 및 건축 분야 재능기부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4호 주택 수혜 대상은 다도면 규동마을에 거주하는 김 모 씨(61세) 가족으로 기존에 살던 집이 노후화로 냉난방이 되지

않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도면 맞춤형복지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발로 뛰어 확인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유)아름건설은 기존 주택 리모델링 비용 3150만원과 재능기부로 자녀 방, 부엌, 단열·도배·장판 교체 등을 통해 김 씨 가족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중증장애인복지협회 도움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책상, 의자 및 가구 등 500만 원을, (주)한전 MCS가 세탁기 등 전자제품 240만원, 기타 기관에서 37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어은화 대표는 "따뜻한 보금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